

---

# 「동학농민혁명 바로보기」

---

## - 목 차 -

1. 동학농민혁명에 이르기까지
  - 1) 19세기 후반 조선의 위기와 농민
  - 2) 동학의 탄생과 전래
  - 3) 동학 공인(公認)운동에서 정치집회로
2. 고부에서 타오른 불
  - 1) 사발통문 거사계획
  - 2) 고부농민봉기
3. 3월 봉기 - 전국적인 농민봉기로
  - 1) 무장기포와 백산대회
  - 2) 황토재·황룡촌 전투
  - 3) 전주성 점령과 청·일병의 조선 출병
  - 4) 완선전투 그리고 전주화약
4. 집강소, 무르익는 개혁의 희망
  - 1) 집강소의 설치
  - 2) 전주회담
  - 3) 군현별 집강소 동향
5. 9월 재봉기 -외세에 의해 가로막힌 꿈
  - 1) 재봉기 결정
  - 2) 복상과 전국 각지의 봉기
  - 3) 우금치전투와 농민군의 좌절
  - 4) 해산 그리고 도피와 항전

## 1. 동학농민혁명에 이르기까지

### 1) 19세기 후반 조선의 위기와 농민

19세기 후반 조선은 안팎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다. 안으로는 왕실 척족을 중심으로 한 소수의 권력층이 권력을 독점한 채 부정부패를 일삼았고, 그런 가운데 나라의 세금 수취제도 등은 극도로 문란한 양상을 보이며 농민 대중을 수탈하는 도구로 전락해갔다. 이에 항거하는 농민봉기가 전국 각지에서 수십 차례나 일어났지만, 상황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국가의 통치 질서가 파탄을 맞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더하여 밖으로는 일본을 포함한 서구열강의 노골적인 침략이 계속됨으로써 나라의 형편은 한층 더 악화되어

갔다.

물론 이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인들의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양반 유생들의 척사위정(斥邪衛正)운동과 개화 지식인들의 개화(開化)운동이 그런 노력의 결과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임시방편적이거나 부분적인 대응에 그치는 한계를 지닌 탓에, 결국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런 시대적 악조건으로 인한 부담과 피해는 언제나 농민 대중에게 지워졌다. 18세기 이래 진행된 경제변동 속에서 더욱 몰락해간 대다수의 영세농, 그리하여 관리와 지주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던 바로 그들이, 위기의 최종적인 피해자였다. 이를테면 당시 농민은 국가와 지주에 의한 이중의 수탈, 열강의 침탈에 따른 직접적 피해를 당해야 했던 것이다. 특히 곡창지대인 까닭에 부패한 관리들에게 ‘보물창고’ 짊으로 여겨졌던 호남의 농민은 다른 지방의 농민에 비해 훨씬 가혹한 수탈에 시달려야만 했다.

## 2) 동학의 탄생과 전래

통치 질서가 허물어지고 외세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는 현실에서, 농민 대중은 의지할 곳을 찾아 현실부정적인 도참(圖讖)사상이나 미륵신앙, 평등사상을 담은 천주교 등에 몰두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의 여러 사상들은 이들의 현실적인 의지처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유교는 애초 양반지배층의 통치논리를 뒷받침하는 것이었고, 재래의 민간신앙은 권력의 수탈을 막아줄 조직체가 되기 어려웠다. 불교는 쇠락한데다 은둔적 성격이 강하였고, 천주교는 이질적인 내용 때문에 아직 거부감이 심하였다.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1860년에 동학이라는 새로운 종교가 만들어졌다. 동학은 경주의 수운(水雲) 최제우(崔濟愚)가 유교의 한계를 극복하고 열강의 정신적 배경인 천주교에 대항하고자, 유·불·선(儒佛仙) 3교를 통합한 종교이다. 동학은 사람이 하늘이라는 평등사상과 새 세상이 온다는 후천개벽(後天開闢) 사상을 기본으로 하였는데, 그 요지는 신분에 관계없이 그 누구나 동학에 들어와 수도를 다하여 천운(天運)에 순종하고 천도(天道)에 합치하면, 현세(現世)에 조화롭고 정의로운 새 세상 즉 지상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었다. 동학은 또 치병과 길흉 예언 등 현실 구복적인 요소를 갖추었고, 척왜양(斥倭洋)의 민족적인 사상을 담고 있었다.

그러므로 동학은 정부와 양반지배층의 입장에서는 체제를 위협하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농민 대중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자신들의 바람을 그대로 수용하여 체계화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동학은 창도되자마자 농민 대중의 환영을 받으며 경상도 일대로 전파되었다. 이처럼 동학의 교세가 확장되자 곧 정부와 양반은 탄압에 나섰다, 이에 최제우는 1861년 11월 경주를 떠나 남원으로 도피해왔다. 이로써 동학은 전라도에 처음으로 발을 내딛었고, 이후 서서히 전라도 일대에 퍼져갔다. 그러나 정부가 동학을 위협한 학문으로 지목하고, 1864년 3월 최제우를 처형함으로써, 동학은 불법시 되어 지하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동학은 전라도에서도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 흔적을 감추었다.

최제우가 처형된 후 동학교단의 실질적 지도자가 된 해월(海月) 최시형(崔時亨)은 정부의 탄압을 피해가며 경전을 간행하는 등 교단 정비에 힘을 쏟았다. 이에 힘입어 동학은 1860년대 말부터 1870년대까지 주로 강원도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재건되었다. 그리고 1880년대 초반에는 임오군란 등으로 극심한 혼란에 빠져 정부가 동학에 대해 손쓸 수 없는 틈을 타고 평야지대인 충청도로 활발히 전파되었다. 전라도의 경우는 1880년대 초 중반에 익산 등지에 동학이 뿌리내리기 시작하여 1880년대 후반 들어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 3) 동학 공인(公認)운동에서 정치집회로

충청·전라도 일대에 동학교도들이 크게 늘자, 이곳의 수령과 아전 등은 동학 금지령을 핑계로 그들의 재산을 빼앗았다. 이에 대해 동학교도들은 1890년대 전까지는 속전(贖錢)을 내고 빠져나오거나 도망치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대처하였다. 그러나 교세가 커지고 조직화되었으며 탄압과 수탈이 가혹해지자, 90년대부터 다른 움직임을 보였다. 즉 동학교단은 창시자 최제우의 복권(復權)을 요구하는 이른바 교조신원(敎祖伸冤)운동을 펼쳐, 동학의 공인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첫 번째는 1892년 10월 공주에서 열렸다. 서인주(徐仁周) 등 교단 지도

자들은 그해 7월 최시형에게 신원운동을 전개하자고 건의하였다. 이해 10월 신중을 기하던 최시형의 허락이 떨어지자, 동학교도들은 공주에 모였다. 이들은 충청감사 조병식(趙秉式)에게, 최제우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달라고 하는 한편 교도에 대한 지방관의 학정을 그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조병식은 동학 공인여부는 정부가 할 일이라며 거부했으나, 각 읍에 수탈금지령을 내려 교도에 대한 수탈문제는 수용하였다. 비록 신원은 이루지 못했지만, 단지 동학교도라는 이유로 공공연히 수탈당했던 동학교도와 교단으로서는 작지 않은 성과였다.

공주집회의 성과에 고무된 동학교단은 11월 또다시 삼례에서 집회를 열었다. 삼례에는 전라도의 교도 천 여 명이 집결했는데, 여기에는 뒷날 농민혁명을 이끄는 전봉준(全琫準) 등 전라도의 동학 지도자들이 많이 참여하였다. 그런 가운데 교단지도부는 전라감사 이경직(李耕植)에게 최제우의 신원과 교도에 대한 수탈중지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경직 역시 각 읍에 ‘동학금지를 빙자한 수탈을 일체 금하라’는 공문을 내릴 뿐이었다. 이후 교단지도부는 삼례집회의 성과를 스스로 높이 평가하면서 신원운동을 지속적으로 펼 것, 최시형의 지시에 따를 것, 해산할 것 등을 교도들에게 지시하였다. 그러나 삼례에 모인 교도의 일부는 지시가 내려진 이후에도 해산하지 않았다. 이들은 관은 물론, 교단의 해산명령도 따르지 않은 채 복합상소(伏閣上疏)와 같은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요구하였다. 이런 강경한 움직임은 동학 집회운동의 성격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써, 이를 이끈 것은 바로 전봉준 등 전라도의 동학 지도자들이었다.

1893년 2월 동학교단은 광화문 복합상소운동을 전개하며, 동학의 공인을 임금과 조정에 정식으로 요청하고 나섰다. 하지만 교단은 여기에서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고, 이후 오히려 상소 주동자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따랐다. 이에 교단은 3월 충청도 보은에서 크게 집회를 열었는데, 이때에는 최제우의 신원 대신에 척왜양(斥倭洋)의 기치를 전면에 내걸었다. 동학 집회운동이 동학의 공인요구라는 종교적 성격과 함께 정치적 성격을 띠어갔던 것이다.

한편 그 직전인 1893년 1월 전라도 일부 관아에는 척왜양을 주장하는 격문이 내걸렸고, 복합상소가 진행되는 사이 서울의 외국 공사관과 교회당에는 서양인과 일본인을 강력하게 배척하는 과서(掛書; 대자보)가 나붙었다. 또한 보은집회가 열리던 때, 전라도 금구에서도 척왜양을 주창하는 집회가 열렸

다. 패서사건과 금구집회는 한층 정치적 지향이 강한 것이었는데, 이를 주도한 것은 삼례집회 이후에도 흩어지지 않았던 전봉준 등 전라도 동학 지도자들이었다. 요컨대 동학의 집회운동을 통해 전봉준 등 전라도의 동학지도자들이 서서히 성장하였는데, 이들은 강력한 정치적 지향으로 집회운동의 성격을 변화시키며 새로운 차원의 활동을 향해 갔다.

## 2. 고부에서 타오른 불

### 1) 사발통문 거사계획

1894년 1월 전라도 고부군의 농민들이 봉기하였다. 호남에서도 대표적인 곡창지대로 꼽히는 고부군에 1892년 5월 조병갑(趙秉甲)이 군수로 부임한 이래, 온갖 불법적인 방법으로 농민들을 수탈한 것이 봉기의 직접적인 계기였다. 당시 관리들의 부패와 수탈은 전국적인 현상이었으나, 조병갑은 그 도가 훨씬 심하였다. 그의 수탈방법은 항목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았다.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이렇다. 그는 원래 있던 보(漕)를 허물고 농민들을 동원하여 새 보를 만든 다음 그 농민들에게서 물세를 받았고, 예전에 태인현감을 지낸 자기 아버지의 공적비를 세운다며 고부 농민들의 돈을 빼앗았다. 또한 돈 가진 자들을 갖가지 죄목으로 엮어 가둔 후 속전을 받고서야 풀어주었다.

고부의 농민들은 이런 수탈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병갑과 전라감사 김문현(金文鉉)에게 몇 차례에 걸쳐 진정서를 올렸다. 농민들로서는 합법적인 노력을 다한 것이다. 그러나 학정은 그치지 않았고, 농민에 대한 수탈과 처벌이 계속되었다. 이에 ‘참고 또 참다가 끝내는 더 참을 수 없었던’ 고부의 농민들은, 1893년 11월 전봉준 등의 주도하에 이른바 사발통문(沙鉢通文) 거사계획을 세웠다. 이는 매우 강력한 무력봉기 계획이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一. 고부성을 점령하고 조병갑을 목베어 죽일 것.
- 一. 군기고와 화약고를 점령할 것.
- 一. 군수에게 아부하여 백성을 침탈한 탐리(貪吏)를 엄하게 징벌할 것.

一. 전주감영을 함락하고 서울로 곧바로 나아갈 것.

## 2) 고부농민봉기

이 계획은 때마침 조병갑이 익산 군수로 발령남으로써 행동에 옮겨지지 않았다. 그러나 조병갑은 익산으로 가지 않은 채 고부군수로 남기 위해 중앙과 전라감사에 줄을 대었다. 결국 정부는 1894년 1월 9일 조병갑을 고부군수로 특별히 머물게 하였고, 이를 계기로 고부의 농민들은 거사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이튿날인 10일에 봉기한 고부의 농민들은 그날로 고부관아를 점령하였다. 이들은 무기고를 혈어 무장하고 억울하게 갇힌 사람들을 풀어주었으며 창고를 열어 백성들에게 식량을 나누어 주었다. 또 탐학한 향리를 처벌한데 이어 조병갑을 찾았으나 그는 이미 도주한 뒤였다. 관아에서 나온 농민들은 말목장터에 진을 치고 대장소(大將所)를 세우는 등 전열을 정비하였다.

한편 봉기 소식을 접한 감사 김문현은 책임을 면하기 위해, 정부에 보고도 하지 않고 자체 수습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농민군처럼 위장한 감영군을 농민군 진영에 침투시켜 그 지도자를 체포케 하였으나, 이를 예상하고 대비한 농민군에게 오히려 감영군이 되잡혔고, 그제서야 김문현은 봉기 사실을 정부에 알렸다. 2월 중순 정부는 조병갑을 체포하고 김문현을 처벌한 후, 박원명(朴源明)을 고부군수로, 이용태(李容泰)를 안핵사로 파견하였다. 고부에 온 박원명은 ‘농민들의 뜻을 받들어 폐단을 시정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농민군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나섰다.

감영군의 기습 이후 전략적 요충지인 백산으로 이동하여 봉기를 이어가던 농민군은, 이즈음 내부의 동요를 겪고 있었다. 전봉준 등은 함열 조창(漕倉)에 나아가 전운영(轉運營)을 부수자고 하며 봉기를 확대하려 했다. 반면 향촌의 동장(洞長) 등으로 이루어진 중간 지도자들은 봉기가 경계를 넘으면 반란이 된다고 전봉준의 뜻을 거부하는 한편, 박원명의 간곡한 설득을 접하며 봉기의 종식을 원했다. 이 같은 농민군 내부의 동요와 박원명의 집요한 회유속에서, 결국 고부의 농민군은 3월 초순 기본적으로 해산하였다.

농민군이 해산한 뒤, 삼례에 머물러있던 이용태는 역졸 800여명을 이끌고 고부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는 박원명을 꾸짖는가 하면 봉기의 주동자를 색

출한다는 명분으로 고부일대를 휩쓸며 약탈과 살육을 자행하였다. 이런 학정이 벌어지자, 3월 13일경 전봉준은 소수 남아있던 농민군을 이끌고 무장의 손화중(孫化仲)에게로 몸을 피했다. 이로써 고부농민봉기는 막을 내렸다. 그러나 그 불씨는 보다 더 큰 항쟁, 부패한 시대 전체에 대한 항쟁인 동학농민혁명으로 옮겨 붙었다.

### 3. 3월 봉기 - 전국적인 농민봉기로

#### 1) 무장기포와 백산대회

고부의 민군이 해산함에 따라 고부에서 도피한 전봉준은 전라도 최대의 동학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무장의 손화중(孫化仲)을 찾아가 ‘봉기하자’고 설득하였고, 손화중이 이에 동조하였다. 마침내 이들은 3월 20일 무장(茂長)에서 창의문을 낭독하고 기포(起包)하였다. 일개 군현 단위의 농민봉기가 아니라 농민혁명이 시작된 것이다. 전봉준·손화중의 농민군은 고부를 향해 행군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전부터 뜻을 같이하던 김개남, 서장옥(徐長玉) 등에게도 연락을 취하였다.

3월 25일 고부 백산에는 정읍·태인·금구·김제·무장·고창·홍덕·영광 등 호남우도 일대의 8,000여 농민군이 집결하였다. 농민군은 이곳에서 대회를 열어 전봉준을 총대장으로 김개남·손화중을 총관령으로 김덕명·오시영을 총참모로 정하는 등 지휘체계를 편성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격문(檄文)을 발함으로써 본격적인 농민혁명을 선포하였다.

우리가 의(義)를 들어 이에 이른 것은 그 본뜻이 다른데 있지 아니하고 창생을 도탄 가운데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의 위에다 두고자 함이라. 안으로는 탐학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구축하자 함이다. 양반과 부호의 앞에 고통을 받는 민중들과 방백과 수령의 밑에 굴욕을 받는 소리(小吏)들은 우리와 같이 원한이 깊은 자라. 조금도 주저치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 만일 기회를 잃으면 후회하여도 미치지 못하리라.

격문을 낸 농민군은 즉시 전라감영이 있는 전주를 목표로 북상하여, 4월 1일에는 금구 원평에 진을 쳤다. 농민군이 대규모로 봉기하여 전주로 진격해 오는데 놀란 감사 김문현은 급박한 사태를 정부에 보고하고, 감영병과 향병·보부상을 소집하여 고부에서 전주로 들어오는 두 길목인 원평의 청도리 앞길과 금구의 대로를 지키게 했다. 이처럼 관군이 전주 입구를 지키고 있는데다 또 관군 10,000여명이 내려온다는 소문이 전해지자 농민군은 방향을 바꾸어 남하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농민군은 4월 6일 고부 도교산(황토산)에 이르렀고, 그 뒤를 쫓던 관군도 뒤이어 도교산 맞은편에 진을 쳤다.

## 2) 황토현·황룡촌 전투

4월 7일 새벽, 관군은 어둠을 이용하여 기습 공격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기습을 예상한 농민군의 역습으로 관군은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도주하였다. 농민군은 관군과의 최초의 싸움인 황토현 전투에서 큰 성리를 거둔 것이다. 이 승리로 농민군의 사기는 드높았지만, 이들은 북상하지 않고 남하하여 8일 흥덕·고창, 9일 무장, 12일 영광, 16일 함평, 21일에는 장성 월평리에 이르렀다. 농민군이 남하한 이유는 전선을 확대하며 세력을 키우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농민군은 남하 과정에서 전주·나주 등지에 글을 보내, ‘탐관 오리를 징계하고 보국안민을 실현하겠다’, ‘대원군(國太公)을 받들고 나라를 바로잡으려 봉기하였다’, ‘군전·환전·연역 등 잘못된 세제운영을 바로잡으라’고 하며 자신들이 봉기한 뜻을 분명하게 펼쳐 보였다.

한편 정부는 4월 2일에 홍계훈(洪啓薰)을 양호초토사(兩湖招討使)로 임명하여 800여명의 경군을 이끌고 전주로 가게 하였다. 경군은 6일 군산포에, 7일 전주에 입성하였다. 그러나 이때는 황토현에서 감영군이 패한 뒤여서 관군의 전력에 보탬이 되지 못하였다. 이에 홍계훈은 일부 병력을 보내 농민군의 동향을 파악케 한 뒤, 자신은 15일 전주를 떠나 금구·태인, 정읍, 고창, 영광으로 내려갔다.

4월 23일에는 장성 황룡촌에서 전투가 벌어졌다. 이날 경군 선발대, 즉 대관 이학승(李學承)이 이끄는 300여명이 월평리의 삼봉아래에 모여 있던 농민

군을 공격함으로써 싸움은 시작되었다. 순식간에 50여명을 잃은 농민군이 후퇴하자 경군은 뒤쫓으며 공격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삼봉에 오른 농민군은 곧바로 위로부터 반격을 가했고, 경군은 대대적인 공격에 밀려 결국 패주하였다. 이 싸움에서 경군은 이학승을 비롯하여 적지 않은 사상자를 냈고, 농민군은 정예부대인 경군을 격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왕의 명을 받든’ 경군과 싸우고 나아가 이를 격파한다는 것은, 농민혁명 이전의 농민들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농민혁명의 와중에서, 새 세상을 향한 농민군의 의식과 의지가 한 단계씩 고양되어 갔던 것이다.

경군마저 격파한 농민군은 빠른 걸음으로 북상을 시작하였다. 농민군의 당장의 목표는 전주성을 점령하는 것이었다. 전주는 감영의 소재지이자 전라도의 수부(首府)였다. 또한 조선 건국자 이성계의 영정(影幀)을 보관한 경기전(慶基殿), 그 시조(始祖)의 위패를 모신 조경묘(肇慶廟)가 있는 곳이다. 따라서 전주는 조선정부는 물론, 봉기를 확대하려는 농민군에게 있어서도 상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었다. 전주성 점령에 나선 농민군의 뒤를 홍계훈이 하루 차이로 쫓고 있었다.

### 3) 전주성 점령과 청·일병의 조선 출병

4월 25일 금구 원평에 이른 농민군은, 이곳에서 임금의 윤음(綸音)을 가지고 온 이효응(李敷應)·배은환(裴垠煥) 등을 공개 처형하여 자신들의 투쟁의지를 확고히 한 후, 26일에는 전주 삼천(三川)까지 진격하여 숙영하였다. 이튿날 전주성 공략의 준비를 마친 2, 3만여명의 농민군은 전봉준 등의 지도하에 서문 밖에 이르러, 용머리고개에서부터 일자(一字)로 진을 펼치며 압박을 가하였다. 이에 감사 김문현은 서문을 닫고 서문 밖에 있는 민가 수천 채를 태워, 농민군이 성을 타고 공격할 것에 대비하였다. 이날 점심 무렵 공격에 나선 농민군은, 성 밖에서 상인과 섞여 있다가 대포소리와 함께 서문과 남문으로 밀고 들어가는, 예상치 못한 책략을 구사하며 전주성에 무혈입성(無血入城)하였다. 수비할 병력이 없는데다 허를 찔린 감사와 판관, 영장 등 감영의 관원들은 모두 동문 밖으로 달아났다.

전주성에 들어와 감사의 집무실인 선화당(宣化堂)을 차지한 전봉준은 4대

문을 굳게 수비토록 하였다. 이로써 농민군은 전주성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이는 농민혁명의 전투에서 거둔 최대의 승리였으며, 정부에 대한 전면적 저항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한편 전주성 함락에 경악한 정부는 이원회(李元會)를 양호순변사(兩湖巡邊使)로 임명하여 경군 1,400명을 인솔하고 농민군을 토벌하도록 함과 동시에, 29일 청군(淸軍)의 파견을 요청하는 문서를 청나라에 보냈다. 이에 따라 청은 5월 2일 2,500여명의 병력을 조선에 파견하였고, 이 병력은 5~7일 사이 충청도 아산만에 상륙하였다. 그러나 이 청군 요청은, 또 다른 파국을 불러온 어리석은 결정이었다. 오래전부터 조선 진출의 기회를 노리던 일본에게 출병의 빌미를 주었던 것이다. 청군이 파견되자 일본은 ‘(청·일 양국 중) 하나가 조선에 군대를 파견할 필요가 있으면 마땅히 (파견에) 앞서 서로 문서로써 통지해야 한다’는 텐진조약을 억지 근거로 또 ‘조선내 일본공사관과 일본인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조선의 요청이 없는데도 6일~12일 사이 약 6,300여명의 군대를 조선에 진주시켰다. 그리하여 조선정부는 안으로는 농민군을 진압하고, 밖으로는 청·일 양군을 철수시켜야 하는 이중(二重)의 문제에 봉착하였다.

#### 4) 완산전투 그리고 전주화약

전주성 함락 다음날, 홍계훈의 군대는 완산(完山;南福山)에 진을 쳤다. 완산은 최고봉이 해발 186m 밖에 안되지만 전주성이 한 눈에 보이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이어 홍계훈은 건지산(乾趾山), 기린봉(麒麟峯), 오목대(梧木臺), 황학대(黃鶴臺;다가산) 등에 군사를 배치하여 전주성을 에워쌌다. 그리고 용머리고개 남쪽 산 중턱에 본영을 설치하는 등 전투 준비를 마쳤다.

군진을 형성함과 동시에 경군은 전주성을 향해 포를 쏘아댔고, 이에 맞서 농민군 수백명이 서·남문으로 나와 완산칠봉의 경군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농민군은 완산전투의 첫 싸움에서 패배하고 말았다. 이 싸움을 시작으로 양측은 거의 매일 크고 작은 전투를 벌였는데, 최대의 격전은 5월 3일에 있었다. 이날 서·북문으로부터 돌진한 농민군은 황학대를 점령한 후 용머리고개를 가로질러 경군의 본영까지 육박했으나, 경군의 집중적인 대포공격을 받아

500여명의 전사자를 내고 성안으로 물러났다. 이때 전봉준은 왼쪽 허벅지에 총상을 입었다.

4월 28일에서 5월 3일까지 벌어진 전투에서 농민군은 전력상에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그리하여 황토현·황룡촌전투의 승리, 전주성 점령 등으로 드높았던 농민군의 사기는 크게 꺾였고, 내부의 동요마저 이는 상황이었다.

홍계훈은 완산전투 중에 전라도 각 지역에서 포군을 모으고 정부에 지원병을 청하는 등 강공을 펴는 한편, 해산하라는 글을 농민군에게 잇따라 보내는 양면책을 썼다. 전세(戰勢)를 반영하듯 홍계훈의 글은 점차 공세적인 내용을 띠었다. 또한 관군은 속속 증원되는데 비해 농민군은 고립되어 외부 지원이 끊기고 식량도 모자랐다. 이런 상황에서 4일 ‘너희들이 바라는 바를 들어줄 테니 속히 해산하라’는 홍계훈의 글이 전달되었다. 이에 전봉준은 소지문을 보내, 봉기할 수밖에 없었음을 밝히고 개혁해야 할 27개조의 폐정을 적은 다음 이를 중앙에 보고해달라고 하였다. 일종의 타협안이 제시된 셈이다.

농민군이 낸 27개조 개혁안의 내용은 탐학한 관리의 제거, 부당한 세금징수의 원천적 철폐, 대원군의 국정 참여, 외국 상인의 불법 활동 금지로 집약되는데, 그 내용 자체는 기존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데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만일 이 요구를 수용한다면, 당시 조선의 체제는 사실상 허물어지고 말 것이었다.

홍계훈은 농민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해산하지 않으면 군대를 내어 칠 것이며, 해산하는 자는 신변을 보장한다고 하였다. 이에 농민군은 전주성에서 물러나겠으나, 자신들이 올린 폐정개혁 요구에 대한 임금의 어떤 긍정적인 조치가 있을 때에만 무기를 반납하고 완전히 해산하겠다고 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양측은 ‘농민군은 전주성을 철수하며 홍계훈은 신변을 보장하고 폐정개혁안을 상주 한다’는 조건으로 타협을 맺었다. 이른바 전주화약이 맺어진 것이다. 유리한 상황임에도 홍계훈이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일본군의 진주라는 예기치 못한 사태 때문이었다. 즉 정부로서는 어떤 형태로든 농민봉기를 매듭지어 일본군의 주둔명분을 없애고 그들을 철병시켜야 했던 것이다.

5월 8일 농민군은 전주성 동·북문으로 나와 철수하였다. 전주성을 수복한 홍계훈은 달아났던 전주의 관속과 삼례에 있던 신임감사 김학진(金鶴鎭)을 불러들이는 등 행정질서를 정돈하였다. 한편으로 그는 ‘전주성을 수복했으

니, 청군(淸軍)이 (농민군 토벌차 전주로) 전진하는 것에 대해 다시 처분해 달라' 는 보고를 조정에 올렸다. 농민봉기가 수습되었음을 알린 셈이다. 그러나 농민군의 전주성 철수가 농민군의 해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곧 이어 경군 대부분이 홍계훈이원회와 함께 귀경한 것도 농민군을 완전히 진압했다고 보았기 때문은 아니었다. 이는 모두 일본군을 철수시키고자 하는데서 온 변화이다. 농민혁명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 4. 집강소, 무르익는 개혁의 희망

### 1) 집강소의 설치

전주성에서 철수한 후에도 농민군은 약속의 실행, 즉 신변보장과 폐정개혁을 거듭 요구하였다. 농민봉기의 수습에 나선 감사 김학진은 5월 20일에, '농민군의 무장해제와 귀가, 정부 주도의 폐정개혁' 을 핵심으로 하는 첫 수습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는 '폐정개혁의 관철과 신변보장' 이라는 농민군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어서 수용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농민군의 세력이 날로 증강되어가자 김학진은 6월 7일 적극적인 수습 방안의 하나로 집강안(執綱案)을 제의하였다. 그것은 농민군의 무장해제와 귀가를 전제로, 농민군으로 하여금 면(面)단위 이하의 행정실무자인 집강을 뽑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농민군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고, 전라도 일부 지역에서는 보다 강경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다.

이같은 상황에 변화를 가져온 것은 6월 21일 일본군의 궁궐 점령이었다. 일본군의 궁궐 점령이란 전주성 수복 즉 내정(內政)이 안정되었음을 들어 조선정부가 일본군의 철병을 요구하자, 억지로 내세운 명분마저 잃은 일본이 조선의 내정을 개혁하라고 협박하던 끝에 비상수단으로써 궁궐을 점령한 사건을 말한다. 일본군은 이 직후에 김홍집(金弘集)을 수반으로 하는 갑오개혁정권을 세우고 내정을 간섭하는 한편, 아산만에 있던 청군을 공격하여 청·일 전쟁을 도발하며 침략야욕을 드러냈다. 일본군의 궁궐 점령 소식을 접한 김학진은 민족적 위기를 명분으로 삼아 농민군 지도부에 회담을 제의하였고, 전봉준은 이를 수락하였다. 그리하여 김학진과 전봉준은 7월 6일 전주에서

회담을 가졌다.

## 2) 전주회담

이 회담에서 두 사람은 관민상화(官民相和)의 원칙에 따라 정부와 농민군이 협력하여 전라도내의 안정과 질서를 바로잡기로 약속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법으로서 군현(郡縣)단위로 집강소를 전면적으로 설치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곧 김학진은 농민군의 지배력을 합법적인 수준에서 인정했을 뿐 아니라, 일정한 치안권과 자치권을 전봉준에게 위임하여 이를 통해 전라도내의 안정을 꾀하고자 한 것이다.

합의에 따라 전주성 안에 대도소(大都所)를 설치한 전봉준은 송희옥(宋熹玉)을 도집강(都執綱)으로 임명하는 한편, 각 군현에 회담의 결과를 알려 ‘평민 침학을 금지하고 치안을 유지하라’고 지시하는 동시에 군현 단위로 집강을 두게 하였다. 전라도 일대에 집강소가 전면적으로 설치 운영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전봉준은 이어 남원으로 가서 시종 강경한 투쟁을 벌이던 김개남에게 협조를 구했고, 김개남 역시 소극적인 입장에서나마 회담의 결과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전라도는 전주 감영을 중심으로 한 행정체제와 전주대도소를 중심으로 한 농민군의 집강소체제가 양립하였고, 8월 하순까지 이 틀은 유지되었다. 이 체제 내에서 농민군은 전주대도소를 기반으로 정국을 주도적으로 운영해 갔는데, “전봉준은 김학진을 옆에 끼는 절호의 기회를 만들어 호남을 마음대로 요리하였다. 김학진은 다만 문서를 받들어 시행할 뿐이어서, 사람들은 그를 ‘(동학) 도인감사(道人監司)’라 불렀다”는 기록은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 물론 집강소는 전라도에 국한되었고 또한 일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집강소는 농민들이 자신의 힘과 의지로 행정력을 장악하고 이를 인정받은 것으로서, 또한 사회개혁의 조건을 스스로 형성해간 것으로서, 농민혁명이 거둔 가장 큰 성과라 할만하다.

## 3) 군현별 집강소 동향

집강소는 전봉준과 김학진이 합의한 산물로, 그것이 농민군 개개 조직의 본부인 도소(都所)와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집강소가 전라도 일대에 모두 설치된 것은 아니며, 그 기능 역시 농민군 세력의 강약에 따라 지역마다 다를 수밖에 없었다. 전북의 각 군현을 집강소의 기능에 따라 묶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민군이 막강한 세력으로 집강소를 장악하고 사실상 통치권을 행사한 곳이다. 전봉준의 직접적인 지휘하에 있던 전주와 금구·태인, 김개남이 장악하고 있던 남원과 임실이 대표적인 지역이다. 또한 강력한 농민군 지도자가 있던 고부·무장·정읍·익산·함열도 이에 해당된다. 둘째 농민군의 세력이 우세하지만 기존의 행정체제와 협력관계에 있던 지역으로, 순창이 그런 곳이다. 순창은 군수 이성렬(李聖烈)과 순창 집강 이사문(李士文)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었다. 셋째 농민군의 세력이 미약하여 집강소가 설치되었다가 곧 폐지되거나, 보수지배층이 집강소를 장악하고 치안기능을 맡은 지역이다. 집강소가 설치된 직후에 폐지된 무주, 그리고 7~8월에 민보군(民堡軍)을 조직한 장수·진안·용담이 이런 곳으로 분류된다. 넷째 농민군이 조직되지 않거나 세력이 매우 약하여, 보수지배층이 처음부터 집강소의 설치조차 거부했던 지역이다. 농민군에게 점령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외부 지원 없이 남원의 농민군을 격파할 만큼 민보군 세력이 강성했던 운봉이 이에 해당한다.

이상에서 전북의 각 군현을 집강소의 기능에 따라 나누어 보았지만, 사실 이들 지역 가운데서도 집강소의 내용이 확실치 않은 적지 않다. 또한 고산·고창·김제·만경·부안·여산·옥구·용안·임피·홍덕은, 집강소와 관련하여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자료의 한계로 아직 잘 모른다.

## 5. 9월 재봉기 - 외세에 의해 가로막힌 꿈

### 1) 재봉기 결정

일본군의 궁궐 점령 이후 전봉준이 집강소체제를 유지하며 상황을 지켜보던 것과는 달리, 전라·충청·경상도의 여러 지역에서는 척왜(斥倭) 봉기가 그치

지 않고 일어났다. 각지 농민군의 이런 공격적인 활동에 호흡을 같이 한 것은 김개남이었다. 집강소체제에 협조하던 김개남은 8월 25일 남원에 다시 들어와 큰 집회를 열었다. 이 집회에는 무려 7만여명의 무장한 농민군이 참여하였다. 이 소식을 접한 전봉준은 남원에 와서, ‘청·일전쟁의 결과 등 앞으로의 변화를 지켜보며 대응하자’며 신중한 입장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김개남은 전봉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때 전봉준은 김개남과 7~8일간에 걸쳐 혹은 다투고 혹은 상의하는, 격론을 벌인 후 전주로 돌아갔다. 상세한 내용이야 알 수 없으나 불과 며칠 뒤 두 지도자가 동시에 재봉기한 것을 보면, 격론 끝에 마침내는 재봉기에 대해 어떤 합의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전격적인 재봉기 결정은 대원군의 밀지(密旨)와 관련하여 이루어졌다. 일본군을 격퇴하기 위한 기회만 노리던 대원군은 8월 25일경 호남의 농민군 등에게 “(너희들은) 일본을 이기기 위한 창의(倡義)에 다같이 참여해서 망해가는 나라를 붙들어 일으키라”는 밀지를 보냈다.

이 밀지는 9월초 전봉준이 있는 전주에, 7일에는 남원의 김개남에게 전달되었다. 청·일전쟁을 도발하고 조선내정을 뒤흔드는 일본군에 맞서고자, 그렇지 않아도 재봉기를 향해 치달아가던 농민군에게 대원군과 같은 존재의 대응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였다. 그리하여 전봉준과 김개남은 8일경 재봉기를 결정짓고, 각각 전주와 남원에서 재봉기 준비에 들어갔다.

## 2) 북상과 전국 각지의 봉기

재봉기 결정이 이루어지자, 전라도 각지에서 농민군은 전봉준과 김개남 휘하로 모여들었다. 그리하여 곧 전주·금구와 남원에는 각각 수만명의 농민군이 무장한 채 기세를 올렸다. 그러나 서울로의 북상은 한 달여 뒤에야 시작되었다. 이처럼 북상이 늦어진 것은, 추수가 끝나기를 기다렸고 또 북상로에 있는 최시형 휘하 충청도 일대 농민군의 합류를 기다렸기 때문이다. 처음에 재봉기를 막던 최시형은 자신의 휘하에서도 봉기 요청이 계속되자, 마침내 봉기를 허락하였다. 최시형은 휘하 동학교도들을 손병희(孫秉熙)로 하여금 지휘케 하였다.

이에 전봉준은 10월 12일 삼례에 모인 농민군을 이끌고 공주를 향해 북상하였고, 두 부대는 16일경 논산에서 합류하였다. 또한 김개남은 전주성에 들어와 있다가, 22일경 공주 주변에서 전투를 벌이던 전봉준을 후원하기 위해 금산을 향해 북상하였고, 손화중·최경선은 일본군이 해로를 통해 농민군 거점지인 전라도를 공격할 것에 대비해 광주·나주로 내려갔다.

한편 9월부터 10월 사이에 약간의 시간 차이를 두고 경상·강원·경기·황해·평안도 지역에서도 농민들이 봉기하였다. 특히 황해도는 해주성을 점령하기까지 하였다. 이처럼 9월 재봉기는 3월 봉기와 달리 일본 침략군에 대한 대응이라는 특성, 또한 전라도만이 아니라 충청도와 경상도 일부의 농민군이 전라도의 농민군과 연계하여, 그리고 이와 별개로 강원·경기·황해도의 농민군이 총봉기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한마디로 9월 재봉기는 반일(反日)항쟁이었고, 그 무대는 조선 전역이었다.

### 3) 우금치전투와 농민군의 좌절

10월 전봉준·손병희와 김개남이 이끄는 농민군, 그리고 전국 각지의 농민군이 척왜(斥倭)의 기치를 걸고 봉기하였다. 한편 일본의 협박을 받던 갑오개혁 정권은 9월 중순, 일본군에게 농민군을 토벌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조선 군대의 지휘권마저 쥔 일본군은 10월 중순 3개 중대 병력을 세길로 나누어 서쪽 공주노선·동쪽 대구병참노선·중앙의 청주노선으로 내려왔다. 또한 일본군은 경기·강원·황해도 등 농민봉기가 일어난 곳곳에 병력을 보내어 이를 진압하였다.

10월 하순 목천 세성산과 응치 등에서 관군과 전초전을 치른 농민군은, 마침내 11월초순 일본군·관군과 공주 우금치에서 전면 전투를 벌였다. 전봉준·손병희가 이끄는 수만명의 농민군은 우금치에서 공격과 후퇴하기를 40~50차례나 하며 사활을 건 싸움을 벌였던 것이다. 그러나 농민군은 잘 훈련된 일본군과 그들의 최신 병기의 화력을 극복하지 못하고 수많은 희생자를 낸 채 패하고 말았다. 일본군은 대포와 연발총·최대사거리가 600보인 소총으로 무장했으나, 농민군은 칼과 활, 죽창이 대부분이었고 일부가 지닌 화승총은 사거리가 100보에 불과했다. 이런 무기의 차이로 농민군은 산 정상에 있는 일

본군에게 근접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았다.

공주 부근에서 밀려난 전봉준은 관군 쪽에 글을 띄워, 농민군과 관군이 연합하여 항일투쟁에 나서자고 하였다. 위기에 처한 나라와 민족을 건지기 위한 마지막 호소였으나, 관군은 이에 호응하지 않았다. 전봉준의 뒤를 이어 김개남이 이끄는 농민군이 청주를 공격했지만, 일본군의 공격을 받고 무너졌다. 이제 농민군은 남하할 수밖에 없었다.

남하 도중에 논산 황화대에서 일본군에게 또 한 차례 타격을 입은 농민군은, 11월 하순에 재봉기의 출발지인 전주에 이르렀다. 그러나 계속되는 패배로 이미 농민군의 전력과 사기는 크게 꺾였고, 더욱이 일본군은 그 뒤를 바짝 쫓아오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전면 전투는 불가능하였다. 그리하여 22일 밤 전봉준·손병희는 고부방향으로, 김개남은 남원방향으로 흩어졌다. 이후로도 태인에서 전투가 있었지만, 전주성에서 흩어지면서 농민군은 사실상 해산 국면에 이르렀다. 이튿날 일본군과 관군은 농민군이 떠난 전주성을 장악하였다.

#### 4) 해산 그리고 도피와 항전

관군과 일본군에 쫓기던 농민군은 금구 원평과 태인에서도 전투를 벌였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많은 사상자를 내고 패배하였고, 결국 전봉준은 11월 27일 태인전투 직후에 농민군을 완전히 해산시켰다. 온 몸을 던져 새 세상을 열고 나아가 외세의 침략을 막고자 했던 농민군의 의지와 행동이, 일제의 야욕과 무력간섭으로 좌절되고 만 순간이었다. 동학농민혁명의 반일(反日)항쟁으로서의 의미는, 역설적이지만 농민군이 격인 후 거국적인 저항 한 번 못하고 조선이 일제 식민지로 전락한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이후로 농민군 세력이 남아 있었던 각 지역, 특히 전라도 일대에서는 일본군·관군·민보군의 잔혹한 토벌이 전개되었다. 일본군은 일본 정부로부터 농민군을 ‘전라도 서남단으로 밀어부쳐 재기하지 못하도록 모두 살육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었다. 이처럼 일본이 농민군 토벌에 혈안이 된 이유는 극명하다. 그것은 조선을 식민지로 삼는데 있어 무엇보다 큰 장애가 되는 것이 바로 이들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관군과 민보군에 의한 자의적인

살육이 뒤따랐다. 그리하여 1894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전라도에서 수만명이 목숨을 잃었다.

농민군 지도자들 역시 대부분 체포·처형되었다. 김개남은 12월 초순 태인에서 잡혀 전주에서 효수되고, 전봉준은 순창에서, 손화중은 고창에서 잡혀 서울로 압송되었다. 전봉준은 ‘일본에 협조하면 살려준다’는 수차례의 유혹을 당당히 뿌리치고, 이듬해 3월 29일 손화중·김덕명 등과 함께 교수대에 올랐다.

농민군의 잔여세력은 이듬해인 1895년 봄까지 대둔산을 비롯한 남해안의 각 섬지방으로 피신하면서 일본군에 맞서 싸웠지만 결국은 재기의 꿈을 접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대표적인 전투는 12월 중순의 보은 북실전투와 장흥 석대들전투, 그리고 이듬해 2월의 대둔산 항전을 들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일본군에 의하여 수많은 농민군이 현장에서 처형되었다. 일본제국주의의 이러한 농민군 학살은 국제법을 위반한 반인륜적 행위이며 일본의 동아시아 침략과정에서 빚어진 민간인 대량 학살의 출발이 된 사건이었다.

## 6. 동학농민혁명 바로 보자

1) 동학농민혁명은 전국적인 농민항쟁이었다.

일반적으로 동학농민혁명은 고부나 전라도에서 일어난 국지적인 사건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는 60년대 이후 역사교육의 결과로 이 사건을 지배 권력의 정당화에 이용하면서도 사건의 전국성은 배제하고자 했던 독재 권력의 의도 때문이었다. 따라서 동학농민혁명은 그동안 정읍의 사건으로 축소되어왔던 것이다.

1860~1893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농민봉기(민란)는 전국에서 약 70여개 고을에 이른다. 그러나 이 시기의 농민봉기는 고을단위의 국지성을 지닌 농민봉기였다. 어느 경우에도 인접고을로 확대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갑오년 고부봉기는 그 수습과정에서 다시 전국적인 농민항쟁으로 확산되었다. 3월 20일 무장 당산에서 이미 여러 고을의 농민들이 집결하였고 무장기포는 전국적인 농민전쟁으로 가는 출발점이 되었다.

그러므로 동학농민혁명은 고부에서 비롯되었지만 무장기포를 계기로 전국적인 농민전쟁으로 확대되어 호남 각 고을은 물론, 충청·경상도를 포함한 삼남지역에서 가장 많은 고을이 봉기에 참여하였고 강원, 경기, 황해, 평안도 지역까지 확대되어 전국의 약 100여개 고을의 농민들이 봉기한 전국적인 사건이었다.

## 2) 농민군 지도자는 지역마다 있었다.

동학농민혁명 인식에 있어 또 하나의 문제점은 전봉준과 호남 농민군 중심으로 이해되고 있는 점이다. 무장기포 이후 전봉준이 이끄는 농민군 지도부는 호남지역 농민군을 중심으로 호남 일대를 돌아 전주성을 점령하였다. 그리고 가을 재봉기에서는 논산에서 손병희와 합세하여 공주전투에 이르렀으나 일본군에 의해 좌절됨으로써 마치 동학농민혁명은 끝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호남 주력 이외에도 전국 각 지역에서 봉기한 농민군은 관군 또는 일본군과 그리고 민보군과의 대규모의 전투를 벌였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전투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 3월 초의 금산, 진산전투 - 이야면, 최공우
- 10월의 청주성전투, 목천 세성산전투 - 김개남
- 10월의 하동 진주 지역의 고승산전투-김인배
- 10월의 내포지역 (태안, 서산, 예산, 홍성) 전투 - 문장준
- 10~11월의 상주 김천전투 -편보언
- 10~11월의 강릉 흥천전투 - 차기석, 맹영재
- 10~11월의 황해도 일대 전투 - 1895 7월까지 항전
- 12월의 보은 북실 전투
- 1895년 1월의 장흥 석대들 전투 - 이방언, 이사경

## 3) 동학농민혁명은 1895년까지 계속되었다.

동학농민혁명은 우금치전투-황화대전투-태인전투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이후에도 이듬해 7월까지 계속되었다. 12월의 보은 북실전투는 400~2천여명의 사망자를 냈고, 12월 말경 전남 일대의 농민군은 장흥성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농민군 약 1천5백여명과 장흥 수성군 1백명의 사상자를 낸 대규모 전투였다. 2월까지의 계속된 대둔산 항전 역시 이시기의 전투였다. 또한 황해도에서는 이듬해 7월까지도 산발적인 전투를 계속하였다.

따라서 동학농민혁명은 우금치 전투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전봉준을 비롯한 대부분의 농민군 지도자들이 대부분 체포되는 12월 이후에도 잔여 농민군세력은 각지에서 산발적인 전투를 계속하였고 황해도에서는 이듬해 7월까지 계속되었다.

#### 4) 동학농민혁명 과정의 시기 구분

동학농민혁명은 일반적으로 1·2차 봉기로 구분하고 있다. 즉 고부봉기를 1차 봉기로, 9월 삼례봉기를 2차 봉기 또는 가을 재봉기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시기구분은 최근까지의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동학농민혁명의 전 과정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각 시기의 성격을 분명하게 들어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5단계로 시기를 구분함이 타당하다.

제1단계 : 고부봉기 단계 : 사발통문거사계획~고부농민해산기(1893.11월~1894.3월 초)

제2단계 : 무장기포 단계 : 무장기포~전주성 점령(1894.3.20~4.27)

제3단계 : 집강소개혁 단계 : 전주성 퇴각~9월 재봉기전(5월 초~9월 초순)

제4단계 : 삼례 재봉기 단계 : 9월 초순~우금치전투(9월 초~11월 초순)

제5단계 : 최후항전 단계 : 11월 중순~황해도 항전(11월 중순~1895.7)

\* 참고문헌

- 『19세기 민중사 연구의 시각과 방법』, 배항섭, 고려대출판사, 2015
- 『전봉준, 혁명의 기록』, 이이화, 생각정원, 2014
- 『이단의 민중반란』, 조정달, 박맹수역, 역사비평사, 2008
- 『동학과 농민전쟁』, 이영호, 해안, 2004
- 『조선후기 민중운동과 동학농민전쟁의 발발』, 배항섭, 경인문화사, 2002
- 『동학사와 집강소연구』, 노영필 국학자료원, 2001
- 『실록 동학농민혁명사』, 신순철·이진영, 서경문화사, 1998
- 『동학농민혁명 100년』, 김은정·문경민·김원용, 나남출판, 1993
- 『농민전쟁100년의 인식과 쟁점』, 역사학연구소, 거름, 1994
- 『다시피는 녹두꽃』,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비평사, 1994
- 『전봉준과 그 동지들』,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비평사, 1995
- 『근대한국 사회변동과 농민전쟁』, 김양식, 신서원, 1996
- 『전봉준과 갑오농민전쟁』, 우 윤, 창작과비평사, 1993
- 『동학과 농민봉기』, 한우근, 일조각, 1989
- 『동학과 갑오농민전쟁 연구』, 신용하, 일조각, 1993
- 『동학농민전쟁 인물열전』, 이이화, 한겨레신문사, 1994
- 『갑오동학혁명사』, 최현식, 신아출판사, 1994
- 『1894년농민전쟁연구』 1~5, 한국역사연구회, 역사비평사, 1991~1995

# 동학농민혁명 주요 유적지

## 1. 동학농민혁명기념관

2004년 전라북도와 정읍시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건립한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다. 기념관은 2001년 1월 착공되어 2004년 5월 전시관과 교육관을 중심으로 개관되었다. 정읍시 덕천면 하학리 황토현 전적지에 위치한 기념시설 부지는 기존의 황토현전적지 49,375평을 포함하여 모두 1010,587평, 연건평 1,871평이다. 현재 건립된 건물은 전시관, 교육관 등이다. 야외공간은 화장실, 주차장, 교육장, 광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광장 조성, 야외전시장, 기타 부대시설 공사 등 2단계 공사가 남아 있으나 이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여 후속사업 추진이 미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전라북도 산하 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업소가 관리와 운영을 맡아 오다가 2010년부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전라북도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 주소 :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하학리 11-1

## 2. 황토현전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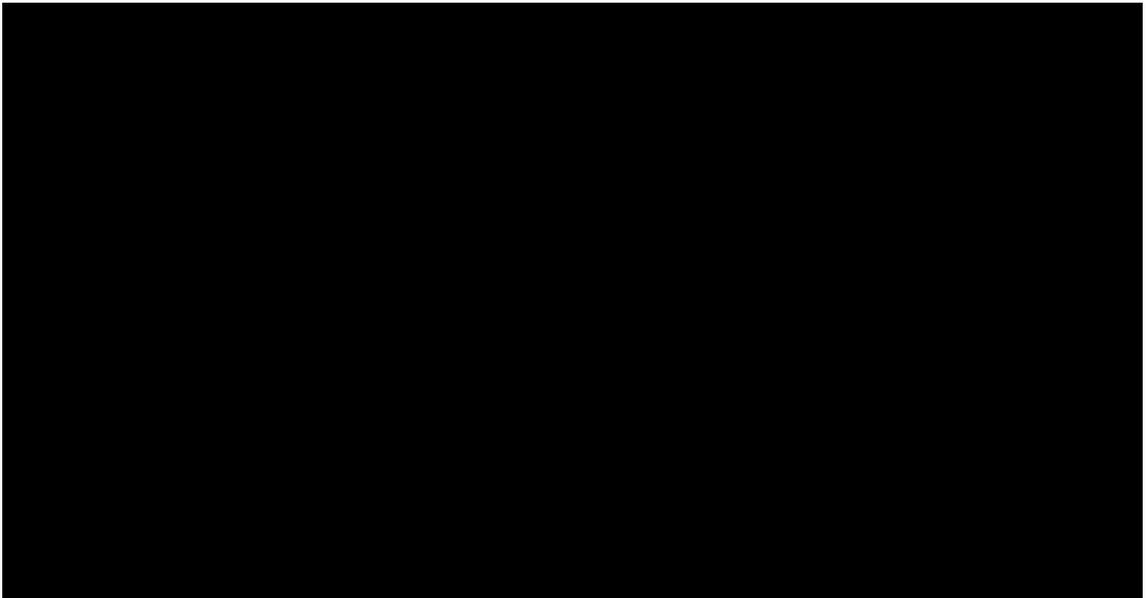
동학농민혁명 당시 농민군이 관군과 싸워 최초로 승리한 곳이다. 1894년 4월 6일 농민군 4,000여명이 도교산(사시봉)에 집결하자 전라감사 김문현은 별초군 250명과 많은 보부상을 이끌고 동학농민군을 토벌하러 나섰다. 감영군을 유인한 농민군이 해질 무렵 사시봉에 진을 치자 감영군은 황토재에 진을 치고 일전을 준비를 하였다. 전봉준은 이날 밤 감영군의 기습공격을 예상하여 진지를 비워 병력을 주위에 매복시키고 허수아비와 나뭇가지에 흰 옷가지를 걸쳐 위장토록 하였다. 7일 새벽 농민군을 과소평가한 감영군은 농민군 진지를 향해 거침없이 공격해 들어왔다. 순간 주위에 매복해 있던 농민군이 삼면에서 공격하자 많은 사상자를 내고 혼비백산 도망치는 감영군을 추격하여 황토현 본진을 오히려 역습함으로써 대승을 거두었다. 황토현 전투는 농민군이 최초로 관군인 전라감영군과 맞서 큰 승리를 거둔 것이다. 이 점에서 황토현 전투는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후 농민군은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한 여세를 몰아 정읍, 고창, 함평, 장성을 공략하고 다시 북상하여 전주성을 점령하였다. 황토현전적지는 1981년 사적 제295호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정비사업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 주소 :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하학리 산3 일원

### 3. 말목장터와 감나무

1894년 1월 고부농민봉기 발발 당시 전봉준장군은 통문을 돌려 1월 9일 저녁 농민들을 이곳에 모이게 했다고 한다. 처음에 모인 사람들은 500여명 정도였다. 이들이 고부관아로 쳐 들어갔을 때 조병갑은 이미 도망치고 없었다. 이어 농민들은 1월 17일 군기고를 격파하여 무기를 가지고 진영을 고부관아에서 이곳 말목장터로 이동하였다. 말목장터는 1894년 당시 장이 섰던 곳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매우 빈번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다. 당시 말목장터에는 감나무가 한그루 있었으며, 전봉준장군이 말목장터에 집결해 있던 농민들에게 연설을 하고 이 나무에 기대어 쉬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감나무는 높이 21m, 둘레 1.8m, 수령은 180년 정도로 추정되었으나 2003년 태풍으로 쓰러져 현재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보관 전시되어 있다. 이곳에는 대체 감나무를 심어 놓은 상태이다. 감나무가 서있던 말목장터 일대는 2001년 4월 전라북도 기념물 제110호로 지정되었다.



※ 주소 : 전라북도 정읍시 이평면 두지리 191-3 일원

#### 4. 만석보터

조선후기 농민들은 물이 흐르는 곳에 물막이 둥인 보를 쌓고 여기에 저장된 물을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다. 고부군수 조병갑은 정읍천과 태인천이 합류하는 동진강 상류에 이미 제 역학을 하는 예동보가 있음에도 농민들을 강제 동원하여 보를 쌓았다. 이것이 바로 만석보이다. 만석보는 홍수가 지면 냇물이 범람하여 상류는 오히려 큰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도 조병갑은 보세라는 이유로 세금을 징수하자 농민들의 원성이 컸다. 이에 전봉준 등 고부농민들은 1893년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고부관아에 수세감면을 진정하였으나 강제로 쫓겨나고 말았다. 결국에는 1894년 1월 10일 전봉준 등 고부농민들은 고부관아를 점령하고 만석보를 부셔버렸다. 이것이 동학농민혁명의 도화선이 된 고부농민봉기이다. 결국 1898년 고부군수 안길수는 이 만석보를 완전히 헐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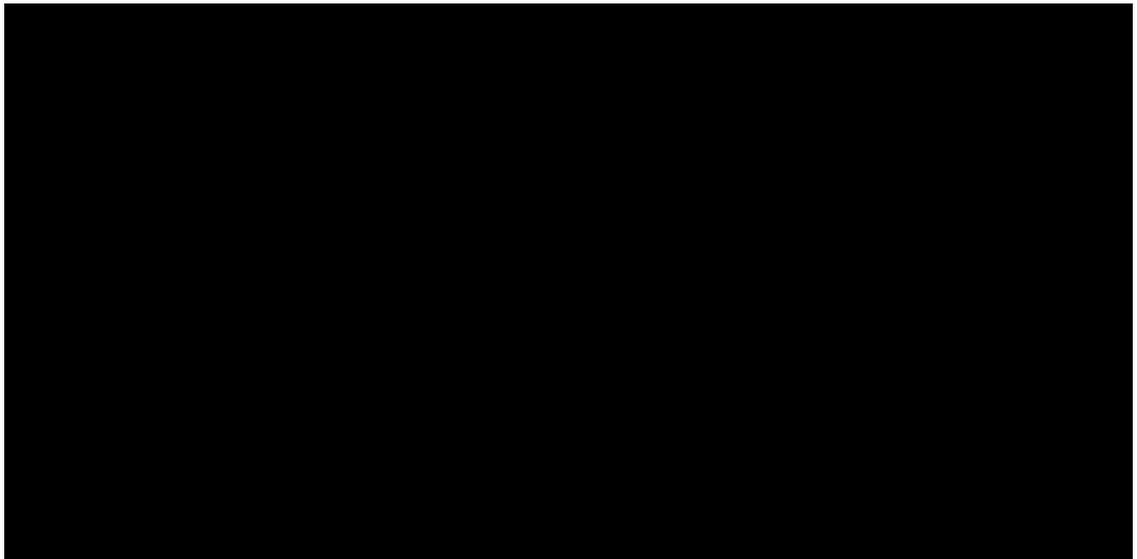
만석보 위치는 현재 기념물이 조성된 곳에서 서쪽으로 약 500m 지점이다. 이를 입증하는 근거는 현재 유구가 강바닥에 남아 있다. 만석보터는 전라북도 기념물 제33호로 지정되어 있다.



※ 주소 : 전라북도 정읍시 이평면 하송리 659-3

## 5. 전봉준 고택

동학농민군 최고지도자 전봉준장군이 동학농민혁명 당시 살던 집이다. 전봉준 공초에 따르면 전봉준은 이곳 조소마을에 와서 수년이 되었다고 했는데 촌로들의 말에 의하면 이웃 양교리 마을에서 옮겨온 것이라 한다. 1894년 1월 고부농민봉기 당시 안핵사 이용태가 내려와 동학교도라고 지목되는 사람의 집을 모두 불 질러 버렸는데, 이때 전봉준의 집도 불태워졌다. 그러나 전봉준 고택은 완전히 타지는 않았다. 고택은 1974년 정읍군에서 국비와 군비로 보수하기 위해 해체작업을 하는 중에 상량문에서 집의 건축일자가 ‘무인 2월 26일(고종 15년 1878)’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전봉준은 이곳에서 서당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다고 한다. 전봉준고택은 1981년 11월 28일 사적 제293호로 지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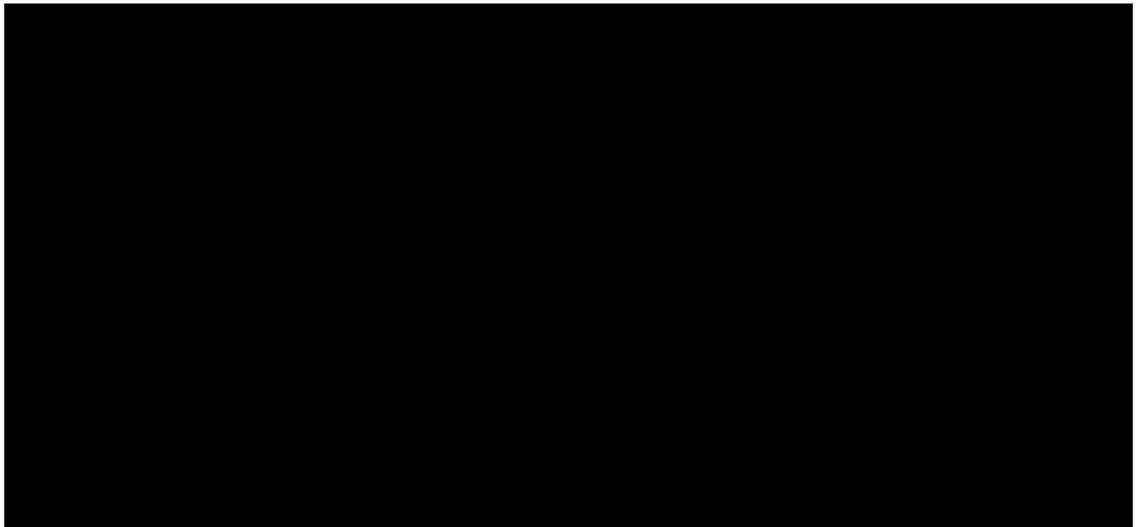


※ 주소 : 전라북도 정읍시 이평면 장내리 458-1

## 6. 전봉준 단소

1954년 천안 전씨 문중에서 조성한 전봉준장군의 가묘이다. 단소에는 ‘갑오민주창의통수천안전공봉준지단(일명 전봉준단비)’ 이라고 쓰여 있는 단비가 세워져 있다. 단비는 1954년 11월 15일 천안 전씨 문중에서 설단하였고, 단비명은 사학자 김상기 박사가 명명하였다. 이후 천안전씨 문중에서 매년 제사를 지내오고 있다.

2004년 5월 세워진 ‘갑오민주창의통수천안전공봉준지단 기’ 와 이듬해 5월에 세워진 ‘설단공적기’ 에 따르면 동학농민혁명 60주년이 되는 1954년은 6.25전쟁 끝나고 1년이 지난 해였지만, 천안 전씨 종친들이 전봉준장군의 위국혼을 모시기 위해 1954년 11월 15일 국내 최초로 전봉준 단비를 정읍 이평면 창동리에 건립하고 추도식을 거행했다고 한다. 이곳에서 500m 북동쪽에 전봉준장군의 고택이 있고, 150m 북서쪽에 선친의 묘소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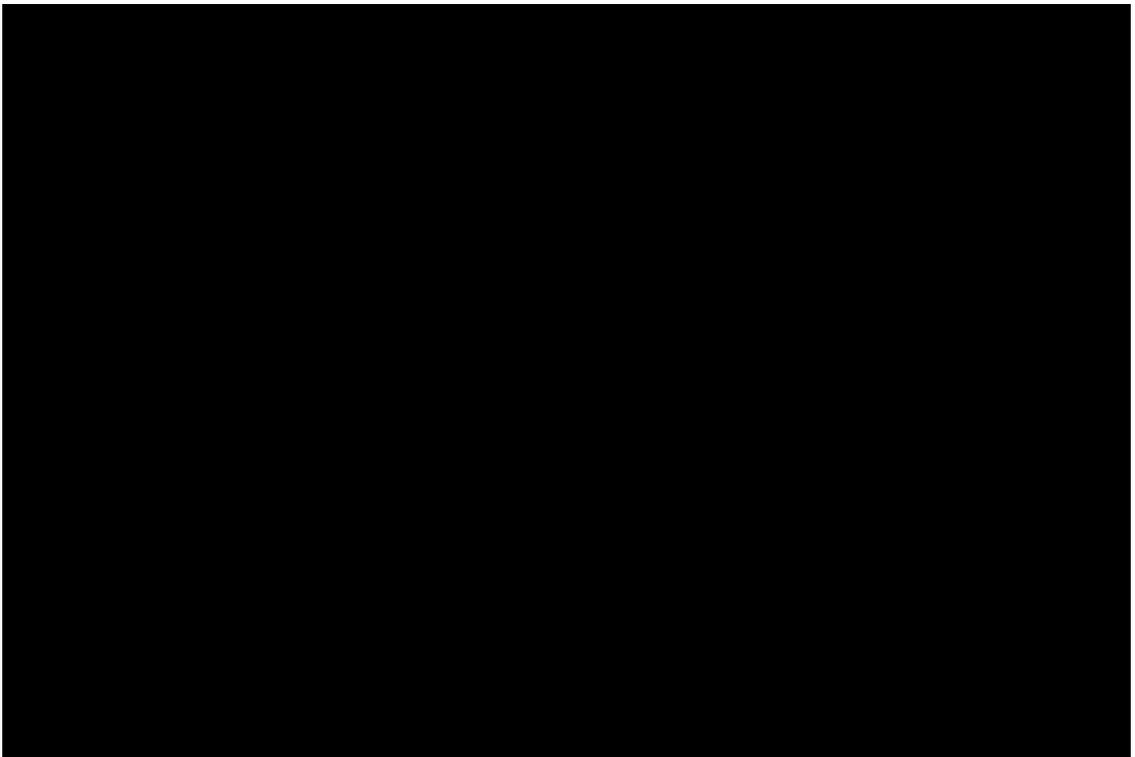
※ 주소 : 전라북도 정읍시 이평면 창동리 산 10-3

## 7. 동학혁명모의탑

고부 서부면 죽산마을(지금의 정읍시 고부면 신중리 주산마을)은 동학농민혁명의 거사를 계획한 사발통문이 작성된 곳이다. 1893년 11월 전봉준 등 20명의 농민군은 죽산리 송두호의 집에서 조병갑의 학정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였다. 여기에 모인 농민들은 조병갑을 죽이고, 전주감영을 함락시켜 서울로 올라가자는 모의를 결의하고 사발통문을 작성하여 각 마을 집강들에게 보냈다.

사발통문은 1968년 12월 4일 발견되어 세상에 알려졌다. 본문과 뒷부분이 떨어져 나가 그 전부를 밝힐 수는 없지만 고부농민봉기가 우발적 사건이 아닌 철저한 혁명적 거사 계획아래 진행되었음을 알려주는 자료이다.

이를 근거로 사발통문 거사계획 참여자 후손들이 중심이 되어 ‘동학혁명모의탑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969년 4월 모의탑을 건립하였다. 모의탑 후면에는 사발통문 서명자 20명의 생몰연대와 그 후손들의 거주지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측면에는 사발통문과 각지 집강 앞으로 보낸 결의문이 새겨져 있다.



※ 주소 : 전북 정읍시 고부면 신중리 산 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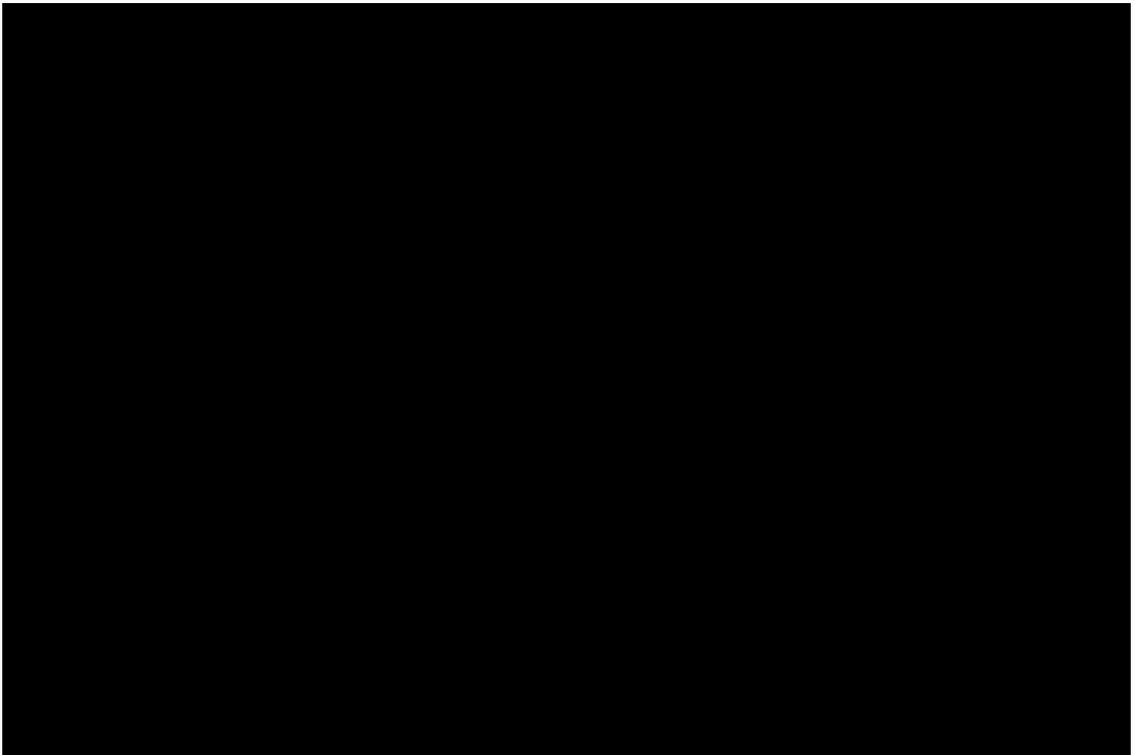
## 8. 사발통문 작성지

1892년 4월 고부군수로 부임한 조병갑은 온갖 수탈과 학정을 자행하였다. 이에 반대한 고부농민들은 1893년 11월 전봉준 등을 중심으로 고부 서부면 죽산마을 송두호의 집에서 고부성을 부수고 조병갑을 죽이며, 군기창과 화약고를 점령하며, 군수에게 아부하여 백성에게 탐학한 벼슬아치를 징치하며, 전주감영을 함락하고 서울로 곧바로 올라갈 것 등을 결의하며 사발통문을 작성하였다.

통문은 1968년 12월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송준섭의 집 마루 밑에 70여년 동안 묻혀있던 족보 속에서 발견되었다. 사발통문은 동학농민군이 처음으로 조직적 봉기를 계획하고 행동목표를 밝힌 문서라는 의미를 지고 있다.

당시 송두호의 집 앞 오른편 대문에는 ‘동학농민혁명모의장소 -사발통문 작성의 집’ 이라는 표지판이 붙어있고, 대문 외편 앞에는 ‘동학농민혁명 거사를 도모하며 사발통문을 작성한 집’ 이라는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한편 주산마을 입구에는 사발통문 서명자의 후손들이 주축이 되어 1969년 동학혁명모의탑을 건립하였으며, 마을회관 앞에는 1994년 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에서 무명 동학농민군의 넋을 기리고 그 뜻을 계승하기 위해 ‘무명동학농민군위령탑’ 이 세워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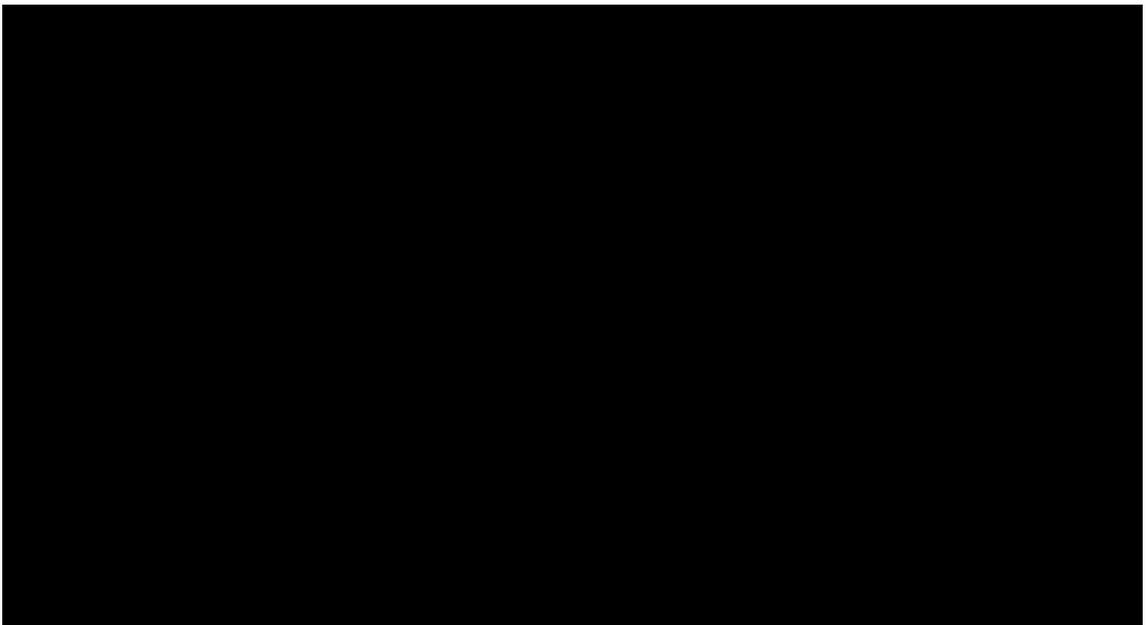
※ 주소 :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신중리 562-1

## 9. 무명동학농민군위령탑

‘무명동학농민군위령탑’은 의로운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한을 품을 채 비도의 누명을 쓰고 전국 방방곡곡 전장터에서 일본군의 총탄에 처절하게 쓰러져 간 선열들의 넋을 위로하고, 오늘의 현실 속에서 그들이 이루지 못한 고귀한 뜻을 계승 발전시켜 역사에 부끄럼 없는 후손이 되기를 다짐하는 의미에서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이 되는 1994년 9월 11일에 건립된 전국 최초의 무명 동학농민군을 위한 기념물이다.

동학농민군지도자가 아닌 이름 없이 쓰러져 간 수 많은 동학농민군의 영혼과 넋을 위로하고 추모하고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를 주축으로 뜻 있는 지역 주민들이 성금을 모았다. 기념물 제작은 서울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을 만든 김운성이 맡았고, 비문은 당시 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고문이던 고 최현식 선생이 지었다.

사발통문 모양의 돌레석안 5m 크기의 중앙 주탑 화강암 판에는 쓰러진 동료들을 일으켜 감싸 안고 죽창 들고 외치는 농민군의 모습을 새겼다. 주탑 주변의 32기의 보조탑에는 1~2m의 크기로 농민군이 무기로 사용했던 죽창·괘이·낫·쇠스랑 등과 이름 없이 쓰러진 농민군을 상징하는 얼굴과 밥그릇이 새겨져 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조각 가운데 매우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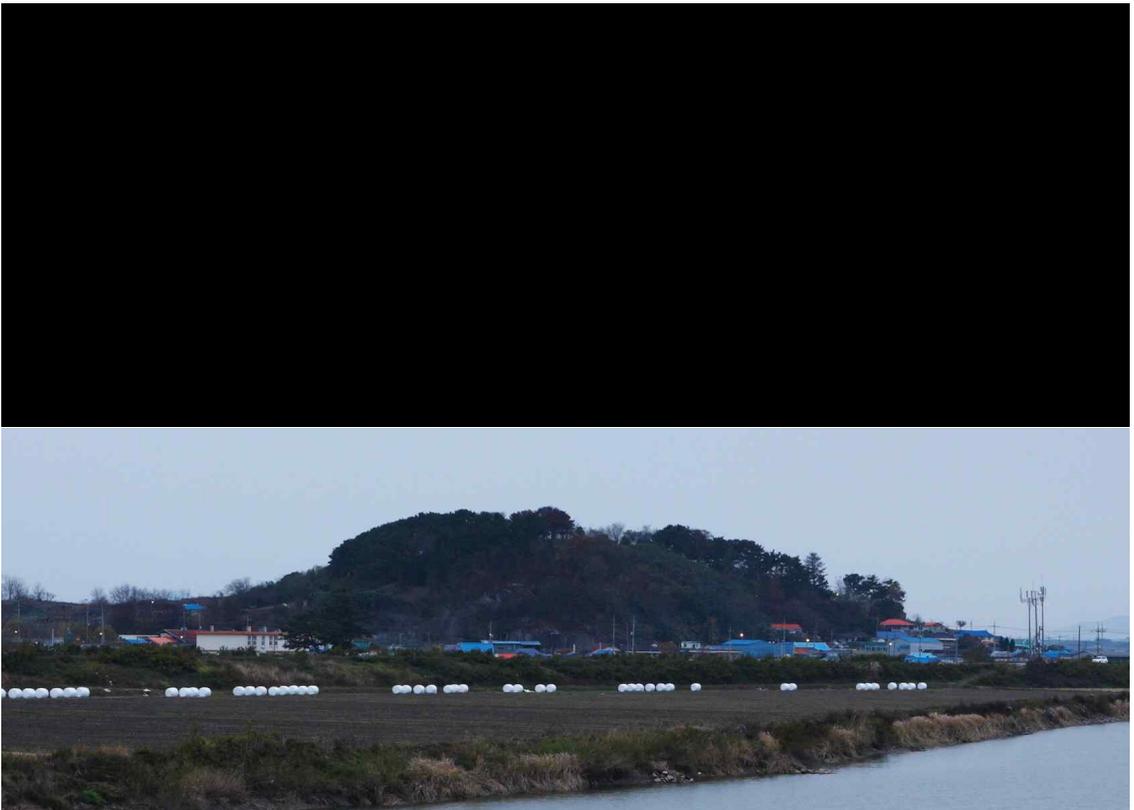


※ 주소 : 전북 정읍시 고부면 신중리 618

## 10. 백산성

백산은 해발고도 47m에 불과하지만 교통의 요지이며, 배들 평야가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전략적 요충지로 마한시대부터 토성이 쌓여져 있던 곳이다. 동학농민혁명 때는 3월 20일 무장에서 기포한 전봉준·손화중과 태인에서 합류한 김개남의 농민들이 군대로서의 조직과 체계를 갖추게 되는 백산대회를 3월 25일 열었던 곳이다. 농민군은 이곳에서 호남창의대장소 명의로 격문을 발포하고 전봉준을 총대장, 김개남·손화중을 총관령, 김덕명·오시영을 총참모, 최경선을 영솔장, 송희옥·정백현을 비서로 정하며 지휘체계와 조직을 세우는 한편 격문과 4대 명의, 12개조 기율을 선포하였다. 당시 농민군들은 흰옷을 입고 죽창을 들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앞으면 죽산(竹山), 서면 백산(白山)”이라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1976년 4월 전라북도 지정 기념물 제31호로 지정되었으며 1983년에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1998년 국가사적 제409호로 지정되었다. 한편, 백산 정상에는 1989년 동학혁명백산기념사업회가 건립한 ‘동학혁명백산창의비’가 세워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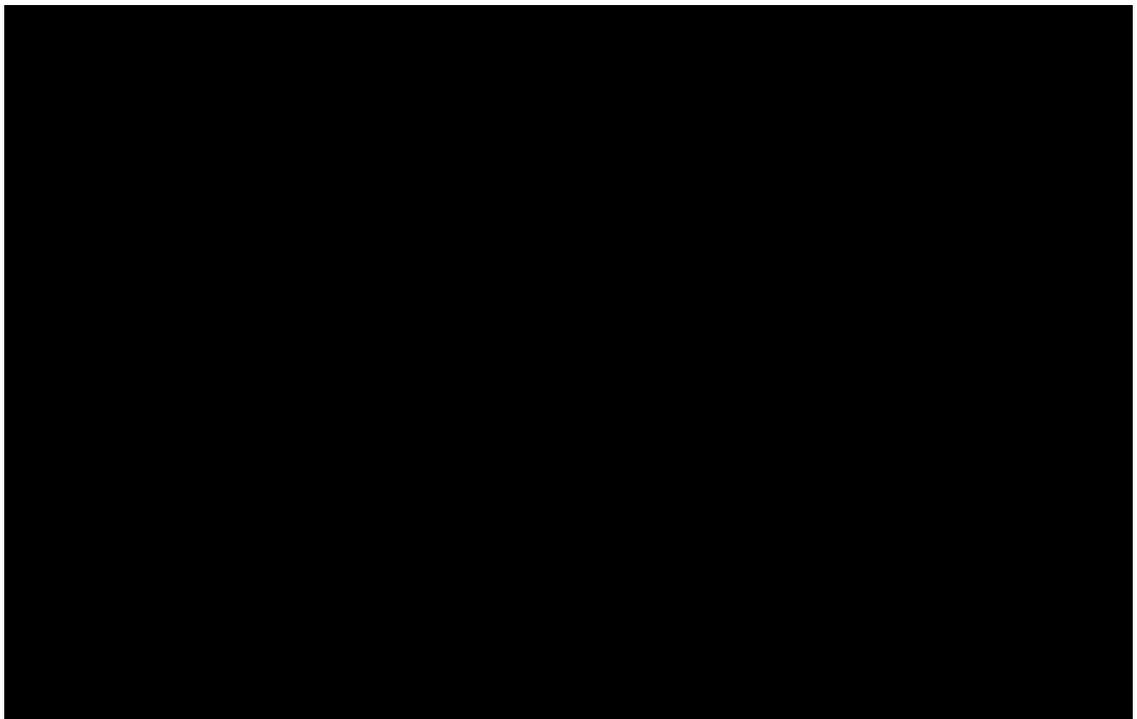


※ 주소 :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 용계리 산 8-1

## 11. 구미란전투지와 무명농민군 묘역

우금치에서 패배한 농민군은 논산을 거쳐 전라도로 후퇴하였다. 전봉준의 농민군은 강경·논산에서 김개남 부대와 합류하였지만 논산 황화대 전투를 거치며 많은 농민군이 전사하거나 흩어졌다. 전봉준은 고부 태인 방향으로, 김개남은 남원방향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전봉준의 농민군은 11월 25일 원평에 도착하여 진을 치고 관군 및 일본군과 접전을 하였지만 37명의 전사자를 내며 고부와 남원 방면으로 퇴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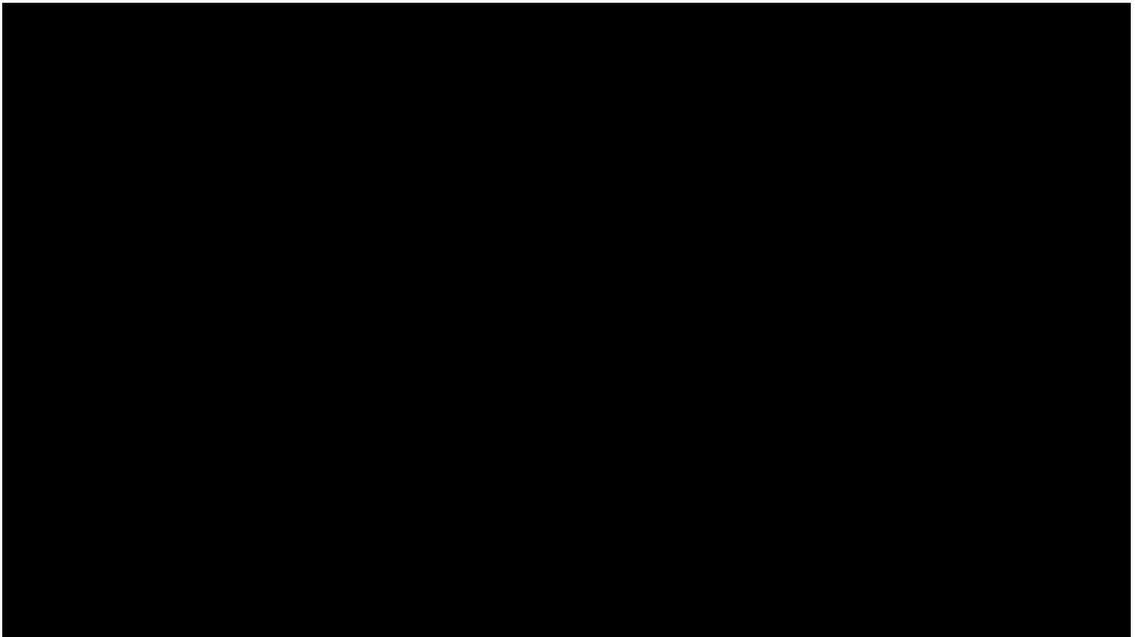
이곳 구미란 전투지는 이름 없이 쓰러져간 농민군의 무덤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는 곳이다. 향토 사학자 고 최순식 선생에 의하면 구미란 소나무 숲속에 버려진 피들이 무명농민군들의 묘지라는 증언을 촌로들로부터 들었다고 한다. 실제 소나무 숲 사이로 무명농민군의 작은 봉분들이 수십 개 남아있는데 이 지역 사람들은 이곳에 묘 쓰는 것을 꺼려했다고 한다.



※ 주소 :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용호리 623-2, 산 121 일대

## 12. 금구 원평집회터

동학농민혁명 전사(前史)를 이루는 교조신원운동이 있었던 곳이다. 1890년대 동학교도가 급격하게 증가하자 동학교단에서는 최제우의 신원을 요구하는 교조신원운동을 전개하였다. 공주집회와 삼례집회에 이어 광화문 복합상소까지 이어졌다. 이후 최시형은 충청도 보은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때 전봉준을 중심으로 하는 전라도의 변혁지향세력들은 이곳 원평에서 집회를 개최하였다. 원평은 전봉준의 가장 큰 후원세력인 김덕명 대접주의 근거지이기도 하다. 이전 교조신원운동이 교조 최제우의 신원과 포교의 자유 등 종교적 목적에 치중하였던 것과 달리 1893년 3월 원평집회에서는 정치적인 요구가 중심이 되었다. 이러한 원평집회는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전라도 변혁지향세력들이 세력화하여 동학농민혁명으로 발전하는데 기반이 되었다. 원평집회터는 원평장이 섰던 곳으로 1919년 3.1운동 당시에는 만세운동이 전개된 곳이기도 하다.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이 만세운동에도 참여하였다고 알려지고 있다. 현재 이곳에는 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세운 ‘동학농민혁명 금구 원평집회 장소 원평장터 안내판’이 있으며 주변에는 3.1운동 기념비가 세워져있다.



※ 주소 :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원평리 149번지 일대

### 13. 원평 집강소

동학농민혁명 당시 농민군이 집강소를 설치했던 곳이다. 동학농민혁명 제1차 봉기 후 전주성을 점령하였던 농민군은 5월 8일 전주화약을 맺고 전주성을 빠져나왔다. 이때부터 이들은 각지로 돌아가 집강소를 중심으로 폐정개혁활동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전봉준은 전라우도지역을 김개남은 전라좌도지역을 맡아 농민군을 통할하면서 폐정개혁활동을 추진해 나갔다. 금구 원평지역에서는 이 지역의 대접주 김덕명이 중심이 되어 폐정개혁활동을 추진하였다. 그때 원평 학원마을에 살던 백정출신의 신분이었지만 부를 축적해서 부자가 되어 있던 동록개라는 사람이 김덕명을 찾아와 ‘신분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며 이 집을 농민군에게 헌납하였다. 농민군은 이 집을 농민군 집강소로 활용하여 백정출신인 동록개가 원하던 폐정개혁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건물은 동학농민혁명 당시 농민군 도소 또는 집강소로 사용되던 건물로는 거의 유일하게 남아 있는 건물이며, 지붕만 초가에서 와가(瓦家)로 바뀌었을 뿐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집강소 통치기 동안 전봉준이 이곳에 머물렀다는 기록도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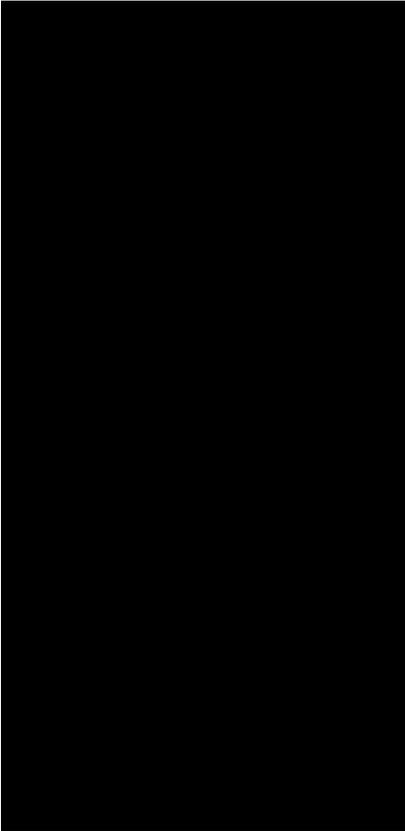


※ 주소 :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원평리 184-3

## 14. 선운사 도솔암 마애불

동학농민혁명 직전 무장 대접주 손화중이 동학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 석불의 배꼽 부근에 있던 비결을 꺼냈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마애불이다. 전설에 의하면 이 석불은 약 3,000년 전 검당선사의 진상이라고 하며 그 석불의 배꼽 속에는 신기한 비결이 들어 있다고 하며 그 비결이 나오는 날에는 한양이 몰락한다는 말이 자자하였다.

그런데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기 2년 전인 1892년 8월 손화중 휘하의 동학교도들이 석불의 배꼽을 도끼로 부수고 그 속에 있는 것을 꺼냈다고 한다. 비결을 꺼낸 이후 무장, 고창, 영광, 장성, 흥덕, 고부, 부안, 정읍 등 여러 고을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동학에 쏟아져 들어왔다고 한다. 이로 인해 손화중의 동학교도들이 크게 세력을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동학농민혁명 직전의 사회 분위기 즉, 새 세상이 열렸으면 하는 농민들의 기대와 무장일대의 강경한 분위기를 알 수 있다. 마애불은 선운사 뒤쪽에 있는 도솔암 서편 칠송대의 바위면에 새겨져 있다. 결가부좌 한 자세로 연화대좌 위에 앉아 있으며, 고려말 조선초의 작품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선운사 도솔암 마애불은 보물 제1200호로 지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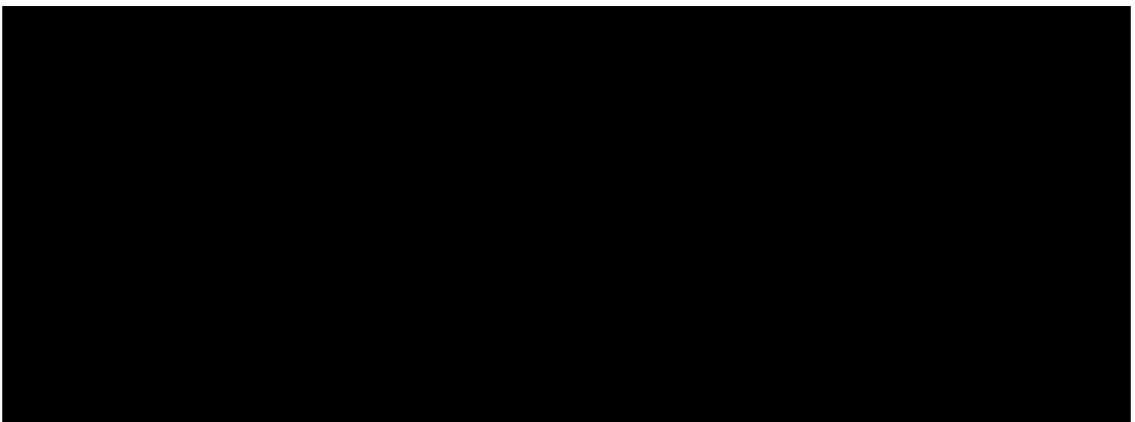


※ 주소 :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618번지 일대

## 15. 전봉준 생가터

이곳은 동학농민군 최고지도자 전봉준장군의 출생지이다. 전봉준은 천안 전씨가 대대로 살아오던 고창 당촌에서 1855년 12월 3일 태어났다. 그가 태어날 당시 이곳에는 천안 전씨가 20여 호가 살고 있었다. 전봉준 일가는 19세기 초에 이곳 당촌 마을로 이주하였다. 전봉준의 아버지 전기창(1827~?) 일명 전창혁은, 마을 서당에서 훈장을 하였다. 전봉준의 어머니는 언양김씨(1821~?)였다. 아버지는 29살, 어머니는 35살 때 외아들로 전봉준을 낳은 셈이니, 당시 실정으로는 늦은 나이에 늦둥이 아들을 둔 것이다. 전봉준의 원래 이름은 철로(鐵爐)였다. 나중에는 병호(炳鎬), 봉준(琫準)으로 불리어졌으며, 자는 명숙(明淑), 명좌(明佐)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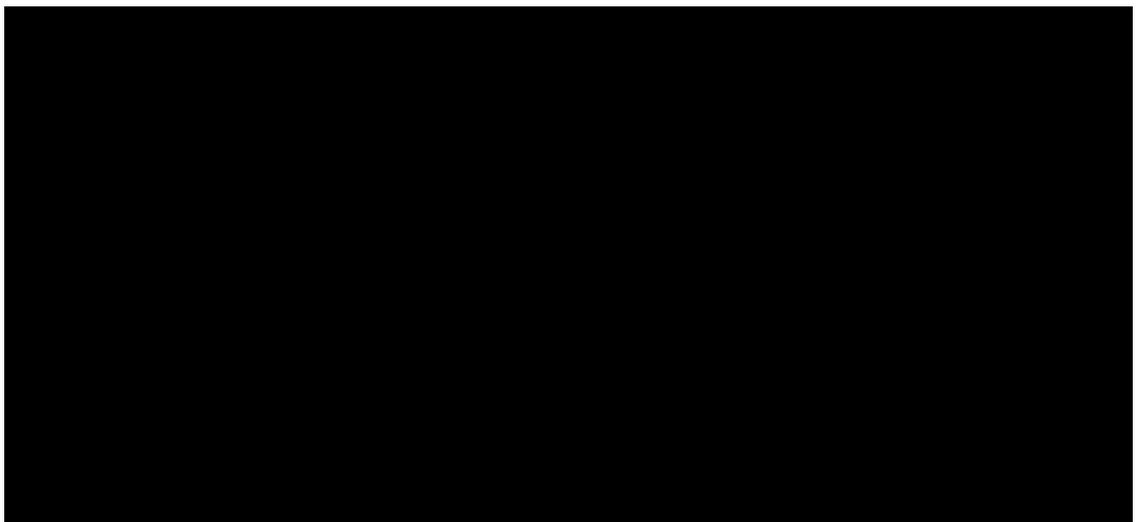
당촌마을은 고창 읍내에서 3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으며 뒤로는 해발 400m가 조금 넘는 나지막한 화실봉이 마을을 감싸 안고 앞으로는 인내가 들판을 가로질러 흐르는 전형적인 배산임수형의 농촌마을이었다. 전봉준은 13살 되던 무렵 당촌을 떠나 고부로 이사하였다. 고창군에서 1998년 전봉준장군 생가 주변 토지 2,813㎡를 매입하고, 2000년 생가(가옥 65㎡, 부속건물 48㎡)를 복원하였다. 현재 잘 관리되고 있으나 생가가 당시 가난한 농민의 초가집으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 주소 :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 59

## 16. 무장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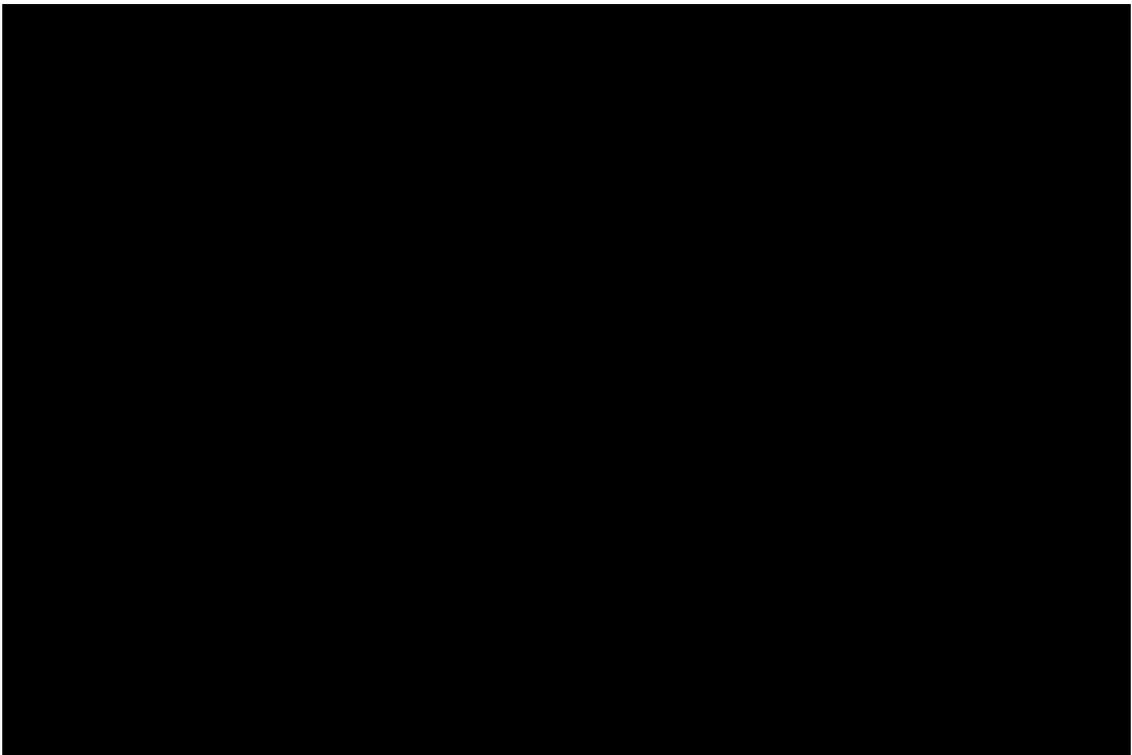
동학농민혁명 당시 농민군이 점령한 곳이다. 무장에서 기포한 동학농민군은 전라도의 각 군과 현을 차례로 점령하였다. 이 과정에서 고창, 흥덕, 무장 등은 모두 농민군의 주요 거점으로 활용되었다. 이 지역들은 동학농민혁명 이전에 동학교도들이 가혹하게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농민군의 진주와 함께 관리들과 관아는 동학농민군에 의해 강력한 보복을 받았다. 그 와중에 고창과 흥덕의 관아 건물들이 불타고 온갖 공문서들이 소각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무장관아는 극적으로 화를 면하였다. 여기에는 무장현 출신 농민군의 만류와 함께 농민군에 대거 동조한 무장 서리들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무장읍성에는 객사가 남아 있으며 얼마 전에 초등학교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읍성을 원형으로 복원하고 있다. 원형대로 복원이 완료된다면 읍성으로서 의미도 클 뿐만 아니라 동학농민혁명의 상징적 공간으로서 의미도 크게 부각될 것이다. 현재 무장읍성은 사적 제346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객사는 전북 유형문화재 제34호, 동헌은 전북유형문화재 제35호로 지정되어있다.



※ 주소 :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면 성내리 156번지 일대

## 17. 무장기포지

1894년 3월 20일 약 4,000여명의 동학농민군이 모여서 포고문을 선포한 곳이다. 전봉준은 고부농민봉기가 확대되지 못하자 무장의 손화중을 찾아갔다. 여기서 전국적인 농민혁명을 일으키자는 합의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주변지역의 농민군을 무장 당산마을로 집결시키기 시작하였다. 1894년 3월 16일부터 당산마을에 주둔해 있던 농민군은 인근 마을에서 탈취해 온 무기들로 이곳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한편, 주변 농민군을 끌어 모았으며 약 4,000여명에 이르던 농민군은 3월 20일 포고문을 발표하고 고부 백산으로 향하였다. 현재 고창군에서는 무장포고문이 발표된 곳이자 동학농민군이 모여 군사 훈련을 하였던 당산 마을 일대의 부지를 확보하여 기념공원을 조성하였다. 이곳은 동학농민군 훈련장과 함께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 건립한 ‘동학농민혁명발상지’ 비, ‘동학농민혁명포고문’ 비, ‘동학농민혁명 기념탑’ 등의 기념물이 조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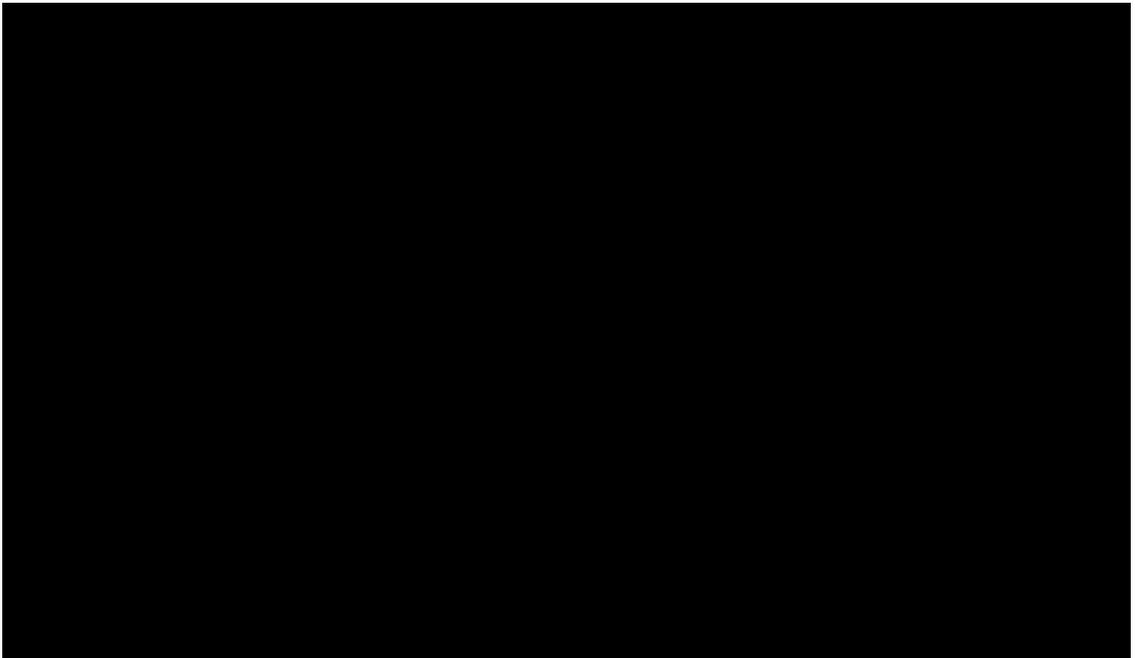
※ 주소 : 전라북도 고창군 공음면 구암리 591번지 일대

## 18. 황룡전적지

동학농민혁명 당시 농민군이 서울에서 내려온 경군과 전투를 벌이고 최초로 승리한 곳이다. 1894년 4월 23일 농민군과 경군 선발대는 장성 황룡에서 전투를 벌였다. 이날 경군 선발대, 즉 대관 이학승을 비롯한 300여명이 월평리의 삼봉 아래에 모여 있던 농민군을 공격함으로써 싸움이 시작되었다. 경군의 포격으로 순식간에 50여명을 잃은 농민군이 후퇴하자 경군은 뒤쫓으며 공격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삼봉에 오른 농민군은 곧바로 위로부터 맹렬한 반격을 가했고, 경군은 대대적인 공격에 밀려 결국 패주하였다. 농민군 1만여명이 “악에 바쳐 들고 일어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죽기를 각오하고 돌격하여, 30여리를 쫓아오는데 저들은 많고 우리는 수가 적은 관계로 우리 군사는 지쳐 쓰러지면서 창황하게 본진으로 돌아왔다”고 하였다.

한편 황룡전투는 장태가 사용되었다고 해서 장태싸움이라고도 한다. 농민군은 여건과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전투에 대비한 것이다. 황룡전투에서 경군은 이학승을 비롯하여 적지 않은 사상자를 냈고, 농민군은 나라의 정예부대마저 격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왕의 명을 받은 경군과 싸우고 나아가 이를 격파한다는 것은 농민들로서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로 황룡전투의 승리는 농민군의 의식에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경군마저 격파한 농민군은 북상하여 전주성을 점령하였다.

황룡전적지는 1998년 사적 제406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1994년부터 1997년까지 광주전남 동학농민혁명100주년기념사업회가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을 조성하면서 ‘동학농민군승전기념탑’을 건립하였다. 그리고 황룡전적지 인근에는 황룡전투에서 전사한 경군대관 이학승을 기리기 위한 ‘증좌승지이공학승순의비’가 위치하고 있다.



※ 주소 : 전남 장성군 황룡면 신호리 356